

‘광주건설 안전 원년’...365일 공사현장 안전점검 가동

실·국별 안전점검 연간 실적평가·확인시스템 도입 안전점검·안전교육·안전홍보 등 추진실적 중점 평가

광주시가 365일 공사현장 안전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발생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 8일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 도입을 위한 전·실·국 간부회의를 갖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안전관리 소관 33개 부서에 대해 365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

해 안전점검 계획 수립 등 이행 실태를 확인·평가하는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부실 공사 현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를 통해 각종 공사현장의 인·허가부서와 발주부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교육, 대 시민안전홍보 등 10여 개 항목의 이행 실태를 매년 연말 평가한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 우수사례는 발굴·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부실공사 적절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고, 감리원의 현장근무, 품질, 공정,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부실공사는 물론 산불방지관리대책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광주시는 또 지난 1월 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 24일부터 ‘부실공사 적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시는 부실공사 예방 제도·정책 총괄 기획 및 현장 점검을 전담할 ‘부실 공사 적절 추진단(단장 시민

안전실장)’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시민안전실(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 도시재생국(도시경관과·주택정책과), 교통건설국(건설행정과), 노동협력관, 종합건설본부(품질시험과)의 모든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또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과 준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은 앞으로 허가 관청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전담 감리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민간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승인 기관이 적정성을 전문기관에 의뢰·검토할 수 있게

하고 연면적 200㎡ 이상 공사 현장에는 착공 전 긴급대피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불량자재 반입 원천 차단에 위해 민·관 합동 품질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과 처벌도 대폭 강화해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감리자가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한다. 시는 특히 ‘부실 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실시공, 안전위협, 부당 작업 지시 등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평가한 광주시 자연재난 과장은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 도입 등으로 부실공사를 적절하고, 올해를 ‘광주건설 안전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베스타스-CS윈드사와 해상풍력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해상풍력 협약 장면.

전남도, 해상풍력 터빈·타워 공장 유치 ‘탄력’

베스타스·씨에스윈드와 업무협약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해상풍력 터빈·타워 공장 유치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전남도는 9일 “지난 8일 베스타스, 씨에스윈드와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아이너 엔센 주한덴마크대사를 비롯해 헨릭 앤데스 베스타스 회장,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베스타스와 씨에스윈드는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

풍력터빈, 블레이드, 터빈 조립을 위한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베스타스, 씨에스윈드와 보다 진일보한 업무협약을 맺은 전남도는 향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씨에스윈드 합작법인은 국내 투자 결정 전 도내 제조업 관련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전남도는 합작법인이 도내 투자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베스타스·씨에스윈드 합작법인의 터빈·타워 공장 도내 유치를 올 하반기 확정하기 위해 해상풍력 사업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 관련 조사

를 적극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은 신안, 여수, 영광 등 7개 시·군의 발전사업 허가 물량이 8.2GW에 달하고, 2025년까지 터빈 발주 예정물량도 무려 12GW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시장성이 가장 우수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해상풍력사업 지원체계를 갖춘 전남은 터빈과 타워 공장 설립의 최적지”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협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베스타스, 씨에스윈드가 전남 해상풍력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반려견과 함께 산책코스 즐기세요”

전남도, 순천 조례호수공원 등 3곳 3월 추천 산책코스·관광지 선정

전남도는 1인 가구 등 소가족 인구가 늘면서 국내 반려인 1천만 시대 흐름에 맞춰 반려견과 함께 즐길 산책코스로 순천 조례호수공원, 담양 창평 슬로시티,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을 3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순천 조례호수공원은 17만㎡의 넓은 면적에 음악분수, 소나무숲, 전망데크, 정화외수, 삼지숲, 잔디광장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3월 말에는 하얀 팝콘처럼 멋진 왕벚꽃길이 펼쳐진다. 또한 죽도봉공원은 낮에 울창한 대숲과 동백숲을 걸으면 운치가 있고, 밤에는 순천 시내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전통 사대부가옥과 구불구불 옛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국적 풍정의 메타프로방스를 비롯해 가로수가 아름다운 메타

세워야길, 다양한 수목으로 이뤄진 한국 정원 소재원에서 반려견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다.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은 잘 조성된 수목 덕분에 봄마다 벚꽃과 철쭉이 만개하는 꽃길로 변신한다. 수변산책로, 맨발로 걷는 지압도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특히 탁 트인 뚝방길을 지나면서 만연한 아래로 펼쳐진 호수 풍경이 일품이어서 사계절 내내 주민이 즐겨찾는 산책코스이자 반려견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 산책로 이용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와 입마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반려인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둬 반려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한 봄 햇살과 아름다운 꽃을 즐기며 전남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려인이 즐겁게 전남을 여행하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팻 투어 여행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전장부품 기술 고도화’ 기업 모집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미래차 대전환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장부품은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구성되는 전기·전자 장치, 관련 부품, 전기가 모터, 카메라·레이다 등 센서류, 전기가 배터리, 전선류, 제어기(PCB), 반도체 등이다.

이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제작, 평가, 양산에 이르기까지 미래차 전장부품 개발 전주기에 대한 기술 자료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기업에 제공

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고장, 리콜 최소화 및 미래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광주본부)에서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지원서류 등을 작성해 한국자동차연구원(광주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기업별 최대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와 참여자격 등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